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6 輯
1988. pp.87－111

구속사에 있어서의 여인상들

(Biblical Women in the Redemptive History)

박 종 칠*

서 론 : 역사에 대한 관심

오늘날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사조와 함께 나타나는 현실 중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것이 여성해방 운동이다. 이에 성경은 여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오늘날 여성해방권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다?

이러한 주제들은 우선 여성들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전통적 유교적 유산을 받은 우리사회, 짖눌러 와야만 했던 여성들이 무언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주제들에 기대를 걸어 봄직도 하다. 하지만 성경의 자료들을 갖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남자들 보다 더 관심의 각광을 받는다는 아무런 이유를 주지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이 여자든 남자든 그 상대적 자질면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여성이라해서 더 매력있게 보고 남자라해서 더 힘있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형편의 남자든, 그 경우의 여인이든, 즉 그 위치선상의 인물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본질적 면을 신약성경 (구약도 그 의미를 가진다) 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느니라고 하고 있다. 여자든 남자든 그들의 자질, 공덕, 부족한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11:2 이 말하는 바의 "증인" 들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그러니 자질을 갖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남녀를 사용해서 한 위치를 주시므로 해서 그 나름대로의 특성, 인격의 주체성, 각성(姓) 마다의 개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해 쓰임받게될 때, 가장 매력있는 인물로 보여지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로마카토릭의 수녀들처럼 수건으로 여자다움을 가리움으로 해서 더욱 매력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없다. 성경의 여성은 그 봉사하는 데서 그녀가 받은 증인의 노릇을 완수하는데서 구원사곧 계시사에서 한 위치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여성을 다루는 주제에 매력의 그 본질적 면이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여러

* 조교수 ,구약학 전공

역사의 순간들에 나타났던 여성들,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교회구원,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해신 바의 모든 세대들을 위한 구원사역 맥락에서 그들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왜 역사냐 ?

오늘날 구원의 역사, 즉 구원계시를 아무리 강조한 들 놀랄필요가 없는 것은 그만한 이유들이 있다. 세기의 교회역사를 통해 볼 때, 많은 이단들이 속출했는데, 그들은 역사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오석하는데 연관되어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실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적 의미가 왜곡되어 나타났다. 더욱이 오늘날 성경을 근본적으로 잘못되게 파악하므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근간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역사 가운데서 계시하는 구속사를 외면하는 어떠한 성경이라도 그 정당한 정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모든 사건들과 주제들을 같은 정도의 것으로 볼려는 위험이 있다. 물론 모세가 처음에 왔고 후에 다윗이 왔고 또 다시 수세기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기는 하나, 역사상에 이른 또는 늦은 사건들 간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수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별개의 사람들이며 사건들을 하나의 같은 것으로 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역사적 인물들 속에 "경건한 자들" "신자들"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우들" 등 정당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리들을 하나의 동시적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한나는 한나이고 사라는 사라인 것을 알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지는 바의 의미를 찾을 때에 그들이 서로 얼마나 같은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B.Holwerda 의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유형론적" 이라는 말이다. 즉 그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 자신들 간에 "역사적 등식표"(historisch gelijkteken) 을 지워 생각하는 것이다[1] 이 인물들과 정도에 따라 그 인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를 모범으로 본다는 것이, 그녀의 특수한 시대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달리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속에서 메시야 약속 성취를 위한 그 어머니 됨을 위한 투쟁, 봉사자로서 모범이 아나라. 천대받음에 대한 인종의 모범, 아니면 (실로로) 신실하게 교회가는 모습의 모범, 아니면 해마다 옷을 지어다 사무엘에게 갖다주는 헌신하는 어머니 상들의 모범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나와 우리 자신 간에 역사적 등식표를 만들어 우리 역사 인내의 시련을 겪어야 하며, 교회에 충실히 가야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지와 안녕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2]

그런데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이런 면으로 (모범적으로)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즉 히11장은 믿음을 말할 때에 "옛날 사람들을" 말하지 않으며 야곱이 엘리야를 들어 인내의 모범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이다. 그러니 이런 성경의 정상적

1) Gereformeerde Theologische Tijdschrift XLIII pp.349-370. 381-403.

2) 박종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기독교문서 선교회, 1986). pp. 194－200.

의도며 목적이며 사용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그들과 우리 자신과 비교한들 그게 어떻게 수입 금제품처럼 취급 받을 수 있겠는가? 사실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다. 성경자체가 때때로 그러한 비교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성경에 의해 살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이 하는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과 우리 (역사적 통일성)

이는 결국 성경해석 문제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개혁주의 역사에서 성경해석 취급에 모범론적" (exemplarisch) 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사적" (heilshistorisch) 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3] 예컨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그의 생의 운명, 희비애노의 변천, 반응을 우리 믿는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모범으로 봄으로서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의미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성경읽는 척도를 아브라함이 우리에 대한 모범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아브라함을 교회 약속의 수납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 으로서 보고 그 사건들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에서 부터 우리를 이해 시킬려교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서는 "등식표"의 방법론이 따라오며 후자의 경우에서는 성경이 배치해둔 그 인격에 관심하는것이다. 이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그러한 선택은 어렵지 않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반대로 같은 성경자료를 갖고서도 정확한 선택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않다. 거의 대부분 성경을 대하는 관심이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져서 적용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어떤 인격에 대한 모든 것이 직선으로 (diret lijntjes) 우리 자신에게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느껴진다 (예컨대 경건주의적 성경독경) 이렇게 하므로 실제적인 연결이 보여지나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데도 교회사상 언제나 모범론적 설교방식이 구미에 맞아 온 것은 사실이다.

위험한 "주의"

이와 관련해서 Holwerda 교수는 고전 10장과 히 11장을 생각하면서 구속사적이니 모범론적이니 하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로서 의도하는 내용이 문제이다고 지적한다. 이 말은 모범이라는 말자체 보다는 모범적 또는 모범주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모범으로 만들거나 유도해서 사건들 마다에 "모범"을 발견하라는 하나의 체계 또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속사 편에서 볼 때에도 똑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3) 박종칠.상게서. pp 25－44.

의미를 깨뜨리는 방법이나 체계가 되는 역사주의로 빠지지 않나하는 기우는 있어 성경계시의 역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정반대로 적용되어 구원계시가 어떤 역사주의에 빠질 기우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구속사적 요소들을 잘 연결하고 구성한다면 성경은 잘 파악되는 것이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있는 정당한 역사적 위치를 바르게 감지하면 그들이 처해있는 위치, 계기, 환경, 책임성등에 분명한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다음에 그들간에 있는 "일치점들"을 발견해야겠다. 역사안에서 "결속" 을 굳게하는 것이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사역, 역사 이외 다른 것이 아닌 것이다. 창조, 재창조, 완성의 역사의미가 성경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진실되게 읽는 지는 자기의 일반적 독단이나 구성이 잘못된 딜레마에게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신인간의 유일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믿음과 역사

히브리 11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여기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비교는 물론 그들 모두와 신약 신자인 우리와의 비교도 하고 있다.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많은 남녀 사건들이 조명되고 있다. 그 다음 12장에서 "우리역사" 라고 하는 말이 따라 온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범" 즉 모범적 신앙이 되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서로 구별되고 그런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사건들 (어느 한 개인의 생애도 타인을 답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 갖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같은 신앙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란 것이 일찌기 다른 사람이 행하였던 바를 회고하고, 구사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지향하고 약속을 계산해서 실상을 보지는 아니했으나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죽는 그런 것이다. 믿음이란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사람들을 그 위치에서 보고 그 상황에서 보는 것이다. 역사 사건들을 자신의 삶의 척도로서, 즉 사라며 라합이 자신의 입장에로 무엇이 전이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들의 신앙이외에 많은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믿었으며 성경에서 그들의 삶과 위치가 약속—초기 약속이며 약속이 계속되는 약속사—에 의해 어떻게 정의되는 지를 볼 때에는 전구약 역사가 하나의 원천이 되어 여기서 부터 교회연대를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양육받아지는 것이고 히브리 12장은 그 연계를 말하는 중 지금 신약의 상황시에 있는 우리도 믿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자신의 구원관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사라,모세, 라합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본 것이다 (히 11:40;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니라" 신약의 우리는 꺼꾸로 침륜에 빠지거나 자거나 은혜를 멸시하거나 용기를 포기하거나 긴장을 하지않고 그런 행위를 하지않고 성도의 교제가운데 우리시대의 우리 위치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역사에서 "비교" 는 그 자체 의미를 가진다. 모범주의는 말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진다. 그러나 구속사는 그 자체의 단백한 원리로 "믿음의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도 답습할 수 없고 어떤 믿음도 모방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의 믿음을 따르도록 배우는 것이다. 믿음만이 각인에게 의미되고 매 순간마다, 각 순간마다 다른 입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진다. 환경들 가운데는 일치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성경연구에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인물의 위치를 고려하고 그들이 그 당시 약속사에서 받아 행사했던 믿음을 고려하고 그 당시 교회에서의 저들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4] 본논문에서는 몇몇 여성들 주제에만 제한하고져 한다.

I 주의 어머니 미리암

우리가 주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탄가사에 나타나는 마리아를 미리암으로 읽는다.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 되기 때문이다.

구약에도 미리암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신약에는 마리아, 구약에는 미리암하니까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우대인들에게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우리 한국의 "자야" 처럼 많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약 미리암은 이브람과 요겟베트의 3남매 모세와 아론의 누이동생이었던 미리암이다 (민 26:59, 대상6:3, 미 6:4, 출15:20, 민12;20:1) 신약에 마리아 이름 가진 자가 많은 중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였던 자에게 여자들 중에 복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었던 그 여인이다. 그 이름 미리암은 평판이 좋았고 신임스러웠고 사랑스럽게 존경받는 것이었다.

이 신약의 헬라어가 말하는 마리아된 미리암은 그녀의 아들 "예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이름으로는 "여호수아"를 낳았다. 수세기를 걸쳐 많은 미리암이 있었기에 여인 중의 하나이며, 그녀의 아들 역시 여러시대를 걸쳐 많이 있어 온 여호수아 중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리암의 하나이며 많은 여호수아 중의 하나로 보아지는 것이 당연하며,이렇게 볼 때 그 아들의 유일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으며, 그 일정한 어머니의 선택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두 미리암

여자들 중에 복받은자 미리암 그녀와, 고대교회 출애굽과 광야여정 시대 동행했던 그 미리암과 비교해 보면 서로 유사한 것들이 있다. 둘 다 모든 세대의 모든 여인들 하는 것처럼 움직였던 보통사람이었다. 선택하심에 따라 교회 안에서 유별난 위치에 놓여져서 특별한

4) H.J.Shilder, Rachels Troost (Goes:Oosterbaan & Le Cointre N.V. 1960) pp. 9-16.

사명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아 성령으로 사역했던 자들이었다. 이런것들 말고는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자질이나 능력이나 명성(prestaties) 을 볼 때, 첫째 미리암이 둘째 미리암보다 훨씬 더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마리아가 모든 면에서 아주 특별한 여인이라고 의례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로 말하면 여자들 중에 복받은자 (눅 1:42) 이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마 카토릭적인 마리아상에 반대하여 쉽게 마리아를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다하여 메첸이나 크레이다누스 교수들은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는 마리아에 대한 정당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된다.[5] 그러나 학자들의 이러한 염려는 생각보다는 달리 마리아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히 높다.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며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마리아상은 상당히 이상화 되어 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무릎에 놓고 있고,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꿇고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어머니가 영광스런 여인으로 부각되어 있다. 백성 가운데 있는 여인 자애로운 어머니 상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딤전 2:15 에 이른대로 "아이들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을 이 마리암은 우리에게 주는 것 같다. 정말 여자들 중에 복 받은 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들 가운데서이다. 그 여자도 하나에 지나지않는다. 백성들 에서 나온 여인이요, 백성들의 여인이다. 진실로 무슨 특별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그녀에게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아마 사관에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 눈에 다소 주의를 받게 된 그 정도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다. 그야말로 보통여인이다.

이 미리암의 자매인 구약의 미리암은 어떠한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백성들 중의 여인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볼 것이다. 하지만 유별난 것, 보통이 아닌데가 있다. 아직도 어렸을 적인데, 자기 남동생의 생명을 구원하며 나타나는 모습 (출 2:4) 은 보통이 아닌 비상한 연민의 정과 조직적인 달란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녀의 입발이 쉬지를 못하는 모양인데, 후에는 모세를 대적하는 입살, 날라거리는 악을 지었다 (민 12) 그러나 자질을 보면 둘째이라면 서러울 정도의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시편을 노래하는 자요, 특출한 예술 재능을 가진 음악가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온 백성들이 축제 분위기의 합창과 고창을 하였었다 (출 15:20,21) 모세는 형태를 가춘시를 썼다고 하면 미리암은 모세의 시편 후렴에 자기 나름대로 노래가락을 넣어 정말 시편의 노래가 드라마틱하게 하므로 백성들은 하나로 흥겹게 받아들이었다 (출 15:1과 15:21을 비교하라) 이러한 재질을 갖춘 여인이고 보니 모세가 구스여인과 결혼 하였다하여 그녀가 악담하므로 대적하니 기초가 흔들린 것이다. 그녀가 솔선해서 나선 것을 보면 그녀는 한 자리를 넘나본것 같다. 위대한 지도자의 결혼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 같다. 정말 특출한 여인이다. 하지만 하나 기억할 것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애곡하는 기간이 있지 않는 것 같다(민 20:1) 요컨대, 모세와 아론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이 그녀가 특별한 여인이였음이

5) Graijdanus 의 "Het Hoogfeest naar de Schriften" 과 G.Machen 의 The Virgin Birth 을 보라.

이 모든 것에서 분명치 않는가?

보통여인 미리암

이 모든 것에서 분명한 것은 구약의 미리암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나사렛 요셉의 약혼녀 미리암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혹자는 그녀가 유다의 유명한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하지 못하고있다. 나사렛에서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명성은 기대할 수 없었다.[6] 그러나 구약의 미리암은 레위 가문의 후손으로 위대한 정치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형제 자매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신약의 미리암의 경우는 다르다. 물론 미리암 역시 시를 지었다. 하지만 구약의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형식에 후렴을 만들어 창법을 하였듯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은 신약의 미리암이 유명한 찬양을 하지아니했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고대 본문을 모아 읽었는데 특히 한나의 노래를 말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극적으로 창출하였다기 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전해오는 성경대로 노래를 학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녀가 따른 노래는 위대한 의미를 가지며 풍성한 의미를 가진다. 이 노래는 마리아에게서 낫다기 보다는 성령께서 자기 영으로 감동된 노래를 노래케 한 것이다. 그 노래의 가치가 위대하다고는 보지만 그 노래가 나사렛 미리암의 "특별한 특권" 이라고는 못한다. 경건한 기독신자 부인이 하듯이 그녀의 생의 광정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시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삼상 2:1-10과 눅 1:46-55) 이러기에 그녀의 아들도 회당에서 첫설교를 인자이면서도 성경을 갖고 설교하도록 하지아니하였던가?

이 미리암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볼 수 없는 것 같다. 전의 미리암처럼 조직적 재능이나 용감하게 해치우는 것도 없다. 얼마나 소심하여 거의 서툴다 못해 우매할 정도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그녀의 자세며, 가족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막3:31,21). 요셉과 함께 12살 먹은 예수님을 찾을 때, 당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엣날의 미리암은 위대한 모세와 함께 있는 인물로서 그의 영광을 나누었던 반면에 나사렛의 예수는 그 가족 때문에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보통사람으로 취급받지 아니했던가 (마13:55).

가정에 있는 직분

이러한 비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자질 면에서나 사람들 가운데 평판을 봐서도 둘째 미리암은 첫째 미리암을 따라잡지 못한다. 양자간에 있는 대조점이나 부족한 점을 말한다고 하면 서로 일치되는 점도 없지않다. 둘째 미리암은 첫째 미리암 처럼 아무런 혁명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자기들 가정의 직분과 소명을 인정하는 일에서는

6) B.Holwerda,"Augustus" registratie Davids restauratie" 를 보라.

무뢰함을 지나 악을 행하였다. 모세의 자매는 광야여정의 아주 중요한 싯점에서 모세의 직분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였다(민12). 그러나 완전한 여호수아의 모친 신약의 미리암은 자기 전생애동안 자기 아들의 직분이 모친성을 완전히 승리 하도록 하는데 씨름하고 있다. 아이기 태어나서 한시간 가량 되었을까 할때, 목자들이 왔을 때에 구주의 어머니는 이 모든것을 지키어 생각했다 (눅 2:19). 더욱 신기한 사태는 그 아이가 일주일 되었을 무렵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언하기를 칼이 미리암의 영혼을 찌르리라고 하였다(눅 2:35). 그런데 실제적인 어려움은 그 아이가 12살 되었을 때,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졌을 때이다(눅 2:48). 정말 알력같은 충돌 (conflict) 이 와 졌다고 하면 그가 30세에 가나안 혼인잔치며 여타곳에 나타날 때 부터는 (요2:43등) 자기 형제들에게는 "객이되고" 자기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모친에게 마져 수수께기가 되었다 (시 69:9,10 요 2:17). 이 알력은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이 극복될 수 있었다. 그이가 십자가 상에서 특별히 "어머니" 라 하고 "아들 이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이가 돌아가시므로 자기 영광스런 사역을 그녀에게 적용하므로서만 가능했다. 이렇게 하였음으로 해서 그의 어머니 미리암은 구원의 지복을 그이 안에서 누리면서 교회 교중의 하나로, 많은 은혜 받은 자들 중의 하나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된다(행1:14).

성경은 이 미리암에 대해서는 첫째 미리암이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반항 행위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이 미리암 역시 자기 아들의—그로 말하면 자기 부모들을 순종하여 받드시었던 분이었다(눅2:51)— 직분을 인정하는 일에서는 우매를 범하였다. 하지만 한때 남동생을 "구원했던" 그 "위대한 모세" 의 "유일한" 자매였던 미리암에게 보다는 신약의 마리아는 그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파악하였던 것이다.

주의 기쁘심의 뜻에 대한 신앙

이런 일들에 유의하여 성탄기사들을 읽는다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찬양을 돌릴 것이다. 미리암을 택하고 주의 어머니가 되게한 그 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으로는 직분을 인정 하는 신앙투쟁은 출생 후 한시간 쯤 후에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았지만 실상은 그앞, 몇개월 전 부터 시작된것이었다. 동정녀에게 천사가 수태를 알리므로, 그녀가 하나님 아들을 받으므로 오는 자신의 결혼과 장래가 무산되는 데서 이미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이미 승리도 시작하였다.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승리가 온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사 수태 선언을 예비 하였을 때, 일은 이루어졌다. 그 순간에 몸과 영혼을 주께 맡기고 "보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다. 주의 구원 경륜을 그이 기쁘심에 따라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오늘날 그 어느 처녀도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 그 누구 처녀가 나도

7) 박종칠. 상게서 pp.

거룩한 성자 하나 낳아보겠다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오늘의 처녀 역시 교회의 일원이니 히브리 11장을 생각해야겠다. 미리암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야겠다.

II. 싸우는 여인들

위 표제는 그렇게 유쾌한 기분을 주는 것은 못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것 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잠언서에 나오는 투정대는 가정주부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성경은 "거룩한 유산자" 를 위해 같은 가정의 교회지체 끼리의 치열한 교제 가운데서 살면서 싸우는 여인들을 보게한다. 으레히 한나를 대항하여 싸웠던 브닌나의 경우를 십상 연상하기 쉽겠지만 이들은 여인들의 투쟁사의 주노선에 다소 외도에 서있다 하겠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해도 과연이 아닌 거룩한 씨(자손), 곧 오실 그리스도의 주 노선에 관계되는 것이다.

우리는 밧담아람에 살았던 야곱의 장막을 생각한다. 여기 나오는 장면을 보다보면 역사상에 있어 보지못한, 한판승부를 벌이는 싸우는 여인들을 보게되는데 이는 또한 싸우는 여인들의 효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의 격돌 가운데서 교회세대, 곧 12 족장들이 출생했다. 부인네들의 불붙은 전투포화 속에서 유다는 생명의 빛,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보았다. 이들의 출생은 사자같이 표효하는 어머니들의 불꽃튕기는 질투와 불가분리 관계된다. 이런 투쟁기사는 성경의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즉 모든 세대의 교회족장들이라고 하는 12족장들이 성경 페이지 속에서 가장 슬프다 못해 어이가 없는 기사로서 읽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라헬이며 레아 이 부인네들이 아이를 얻어보려는 그것이 한 사내 아이를 얻어보려는 경상도 말로 하면 새끼하나 더 낳아 보려는 열화같은 질투의 역사가 창 29:31-30:25 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정말 기분 나쁜 기사이며 홀버다 교수의 말을 빌리면 이 기사는 공격적(anstotelijke) 순간들의 연속이다.[8] 이는 사랑치정의 역사며 합합체(두다임—뿌리부분이 생식기 비슷하여 이것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고 미신적으로 믿음)의 이야기며, 복수의 사랑행각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무슨 좋은 것이 기대될 수 있으며,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여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택하시는 기쁘신 뜻을 계시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생케 하며 여기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대문 위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이름들이 나게 하셨다(계 21:12).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한 추억이 되도록 제사장들의 에봇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하셨다(출 39:6-7,14). 말하자면 이 이름들은 영광스럽기 이전에 싸움판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나가 상대에 대해 승리를 장담하고 출생하면

8) B.Holwerda, Historia Revelationis Veteris Testamenti (Kampen, 1971) p 124f.

승리를 외치는 것이었다. "미움을 받는자(레아)와 그 당시 아이를 못가졌으니 "사랑을 받는자" (라헬) 간의 피나는 경쟁의 한판승부였다. 이 두 여인은 아이 많이 낳기 전투에서 생사를 걸었는데, 자기들 힘이 진하면 고대 동양적 인습에따라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기용했는데, 여종들 까지도 사랑치정 싸움에 가담되도록 했다.

이렇게 까지 싸우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냐?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슬픈 비애 뿐이다. 사랑을 먼저받은 라헬이지만 결혼이 되고 아이를 낳는 일에는 꼴지가 되었다. 그녀가 늙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들은 어머니의 생명희생을 요구했었다. 정말 모든 것을 희생했어야만 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긍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같고 자기 남편이 흐뭇해 하는 것 같지만 그녀 자신은 무덤에 묻혀야만 했던 희생을 치루었다. 하지만 비단 그녀가 낯선이국 땅에 묻혀지만 그 무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어디에 묻혔다(창 35:16-20).

이것이 라헬의 종말이다. 이러한 사정이 자기남편 야곱의 죽음 임시에는 무슨 달라진 것이 있나하면 그렇지도 않다. 한때 미워했던 레아 옆에 야곱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각자의 남편의 여편네들로 처음으로 끝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자손의 소유가 된 이 세상의 조그만한 땅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었다(창 50:13, 49:29-31). 그런데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어디 외딴 곳에 라헬만이 홀로 안치되어 있다.사라도 리브가도 각자의 남편 옆에 누워있는 그 전통적인 곳에 레아 옆에 야곱이 죽은 시체로 누워 있다. 하기야 야곱 자신이 이를 원하였다. 야곱은 죽기전에 명하기를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49:29)고 했다. 조상의 소유 매장지에 "아브리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고 하여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 나도 "내 아내" 레아라고 야곱이 부르지 아니했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쁘신 뜻은 기여코 강권하는 역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야곱 자기로서는 라헬에 대한 애틋한 연민의 정을, -비록 이들 라헬과 레아 모두 가버렸지만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계속되는 것은 부인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야곱이 죽고 얼마안되어 그 죽은 셈족인을 가나안에 있는 화려한 그 무덤에 안치키 위한 바로 왕국의 거국적 장례행렬을 보게된다(50:14 참조). 그런데 이 바로의 대행렬은 라헬이 묻혀있는 에브랏(35:19)으로 가지않고 고대 에브론의 발, 곧 아브라함이 - 사라의 죽음으로 준비해 두었던 -최초의 교회 깃대를 자신의 소유지에 말뚝을 쳤던 그 "교회동산"(kerk-hof) 으로 갔다. 거기에 야곱은 안치되었는데 평소에 "미워했던" 레아 옆에서였다. 정말 묵직한 의미가 여기있다. 이미 죽은 이들을 두고 첫째니 둘째니, 미워했다, 사랑했다 하는 말들이 의미가 없다고 할런지 모르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늘상 야곱집에서 뒤로 재쳐지고 따돌림을 당하였던 레아의 변화되는 모습을 눈여겨 보자. 보라 결말이 어떤한지 대조해 보자. 종내에 라헬이 죽고 , 뿐더러 뒤로 쳐지고 외딴 무덤에서 안치되었다. 먼저 사랑 받던 자가 제일 나중으로 처진다. 결혼 날에 첫째는 되었으나 늘상 마지막으로 대우받던 이가 죽음에서도 첫째가 된다. 결혼 그것이 비록 라반의 속임으로

된 일이기는 하나 중대한 종말을 가져온다. 잘못된 인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결합이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야곱이 임종시에 간단한 말로 스스로 항복을 한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의 몇마디에서 신앙세계를 볼 수 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쁘신 뜻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 몇마디 말에는 자기 전 생애를 걸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임을 보게 된 한 남자의 신앙고백이다. 야곱의 얍복강가에서 씨름하지아니했던가? 그런데 그 하나님, 자기의 온갖 결혼의 의도며, 경향성, 편애성을 꺽고 이기는 가장 강하신 분이심을 보게된다. 진작 레아가 결혼을 하였을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을 한 이상 사죄의 은혜를 받은 신부가 뒷구석에 살도록 해서는 안돼, 이렇게 되면 야곱 너가 그녀를 대적하는 일이되며 이삭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하나님을 대적 하는 일이된다. 야곱 너가 결혼생활에 그녀를 푸대접하면 내가 그녀에게 찾아와서 천대받는 이가 아이에 아이를, 아들에 아들을 연달아 낳게 하겠지만, 반대로 사랑받는 이는 울부짖게 할 것이다. 이때에 레아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게된다. 가난한 자와 미움받는 자의 권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다. 남편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의) 어머니 권리를 얻어 내려는 투쟁은 레아가 자기 아이들에게 주는 이름을 봐서도 알 수 있다. 남편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함을 보는데 (창29:31 참조) 그녀의 애틋한 절규, 슬픔(doleantie)을 하나님은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폐일언하여 나의 많은 야곱은 약속되었던, 그러면서 이미 일부 얻어진 땅에, 그것도 레아 옆에 안장되었고, 여기서 레아의 아들 유다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날을 예비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이 심각하였기에 아직도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홀버다 교수가 다루는 계시사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자.

"두 부인은 고상한 이념, 곧 '교회 씨'를 위해 싸웠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런고로 이들은 기도로서 싸웠던 만큼 동기와 방법들로 말하면 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감되었지 육적 감각에 의해서는 아니다. 여기에 "육체"가 그들 투쟁에서 무서운 존재로 나타난다. 이 육체 때문에 높고 조심스런 영적충동과 수단들이 오염된 것만은 부인하지않는다. 라헬의 입장은 언제나 어렵게 간신히 구조되나, 그녀는 야곱의 자연적 선호를 즐길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어머니 되는 것을 막으셨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이 말한대로 정말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그녀는 초인간적으로 역작용하는 일에 부딛힌다. 틀림없이 교회 어머니 되고 싶어하는 열망은 영적임에 틀림없다. 이럼으로 자연적 우월성 만을 누리도록 하고 레아를 제외시킬려고 한다. 그럼으로서 하나님은 라헬을 죽게해서 이 모성에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에 대해 자랑치 못하게 한다. 모든 자연적 우월권은 선택이라는 은혜 성격에 맞서는 것이다"[9]

이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이 사건들과 앞에 것들, 즉 사라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에서

9) B.Holwerda, 상게서 pp. 120-121.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냐에 대해서는

" 전의 문제에서는 교회씨가 자연적 가능성에서도 태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은 사라를 자연적 가능성의 길에 따라 어머니가 되는 것을 막았다?. 그 다음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교회씨가 자연적 가능성에 태어나는 것은 아닐찌 모르나 자연적 기득권에 따라서나 아니면 기쁘심의 뜻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냐는 문제다. 환언하면 레아-라헬의 충동은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되는 문제), 하갈-사라의 투쟁(자연적 가능성), 또는 에서-야곱(편향성) 싸움과는 다른문제로 연속적인 카테고리는 아니라는 것이다."[10]

그래서 아이들 이름 짓는데서 나타난다. 레아의 넷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레아의 아이들의 이름에서 하나님 은혜의 기쁘신 뜻이 나타난다. 르우벤-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그녀의 압박을 보아 그녀가 교회어머니 되게 하신다.시므온-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미움받는 나를 들으셨다. 유다-내가 지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고 한다. 그러니 약속의 씨가 됨에는 교회의 모든 자연성이 간과된다 여기서 부터 레아 자신은 여호와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머니 됨을 보았다. 그런고로 레아는 야곱이 자기 위치를 안정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레아는 언젠가는 그 "미움" 이 끝장이 날 것임을 바라고 있다. 그녀는 레위(연합함)와 르우벤(보라 아들이라)을 작명함으로 강하게 이것을 나타낸다. 그녀가 비록 어떠한 인정도 야곱으로 부터 받지 못하고 몹시 여김을 받는다해도 그녀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야곱이 자기의 자연적 애정을 갖고 설쳐도 하나님은 그녀를 택하시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레아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유다).[11] 이 레아족의 아이들이 태어나자 레아와 레헬간에 싸움이 본격적으로 계시되는데 라헬의 첫아들(빌하를 통한)의 이름은 자기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단(억울함을 푸심-하나님이 그녀의 권리를 얻게하셨다)과 납달리(경쟁함-그녀가 초인간적 투쟁으로 그녀의 자매에 대해 승리케 하셨다) 이라고 이름하므로 라헬은 자기 마음에 품은 바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녀가 레아 앞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이름으로서 라헬은 권리문제를 내놓고 첫째된(남편 사랑받는 것) 자연적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해서 진전된 것은 없다. 왜냐면 레아와 비교를 한다해서 라헬에게 진전된 것은 없다. 왜냐면 레아와 비교를 한다해도 라헬은 여전히 둘째 서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녀에게 곤란하게 된 것은 자기가 쓴 방법을 자기 맞수 레아 역시 할 수 있고 오히려 레아를 하도록 충동했다. 여기에 사방을 생각해도 육체의 지배만 남아있다. 레아 역시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되는데 "그녀는 첩의 싸움을 정공법으로 받아서 계속 선두를 유지한다. 갓(복됨) 과 아셀(기쁨) 의 이름으로 승리를 외치는 믿음의 동기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 라헬은 종내에는 "자연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강권하려 한다. 경쟁자들로서

10) B.Holwerda, 상게서 p.121-122.

11) B.Holwerds, 상게서 p. 118.

총애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일 수 있는 합화체는 라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얻고 승리하려는 최후 시도이다… 레아는… 이 싸움을 여유있게 받아들여서 응수한다…이러므로 라헬은 첫째가 되고자하는 그녀의 열망을 스스로 건네주어 성취되도록 하는 격이된다. 이러므로 레아는 정도에 다시 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노선에 다시 서게 된다. 레아는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들으셨다(30:17). 레아는 다시 두 아들과 한 딸을 얻었다. 잇사갈(값), 스불론(거함)이라고 작명함에서 그녀가 시작할 당시의 믿음의 수준에 다시 서게 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녀를 선두주자로 크게 벌어지게 하는것이다"

지금 "이러한 일이 라헬에게는 괴로운 일이나 기쁘신 뜻에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것이 그녀를 산산조각 나도록 만들고 있다. 그녀의 요구는 하나님으로 부터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녀의 시녀들도 하나님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제 라헬이 기도 하지만 그 기도는 자신의 모든 요구와는 상거가 멀고 스스로 기쁘신 뜻에 맡긴다. 그러니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크게 이루어졌다. 왜냐면 여호와께서 그녀를 들으시고 그녀에게도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셉의 작명에서(창30:24,23) 라헬이 인정됨이 분명하다. 라헬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기대한다. 많은 아이들을 열망은 하지만 첫째가 될려는 욕망에서는 아니다. 그녀 자신은 하나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레아 옆에 있는 교회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에 따라 교회를 건설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면 기쁘심이 교회건설을 함에 모두에게 같은 위치를 주지는 않지만(롬12, 고전12) 그렇지만 각자에게 한 위치를 주기때문이다. 그리고 기쁘심이 인정되는곳, 거기에는 건설이 경쟁으로 인해 이상 더 길게 찢어지지 않고 사랑가운데 연합하므로 진척되기 때문이다."[12]

여기에 라헬의 육체에 따른 주관성이며 인정받고져 하는 자연적 욕구가 결정적으로 깨뜨러지지 않았음이 라헬 그녀가 최후적으로 자기아들 작명하는데서 분명하다. 베노니(슬픔의 아들)라는 말은 아직 한이 풀어지지 아니한 응어리진 말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육체로 결정적이 되지 못한다. 야곱은 이 늙은 라헬의 최후 유산을 재빠르게 성령에 따른 더 나은 말로 바꾸어 놓는다.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고 나의 세대에 교회를 건설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마음의 첫째가 고독한 죽음으로 뛰어가는 그 순간, 아니 광야 외지 땅에서 묻혀지는 바로 이 순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것이 새 예루살렘의 고귀한 돌이 된다. 이 고귀한 돌들은 레아의 자연적 기능성이나 "라헬의 자연적 권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미천하고 미움 받는자, 레아로 고귀하게 하였다. 동일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라헬의 모든 주장을 깨고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왔으니 동시에 그녀를 높혔던 것이다. 기쁘신 뜻의 고귀한 돌이 12교회 대문을 찾이 하는 것이다.

12) Holwerda, 상게서 pp. 122-123.

이렇게 볼때, 싸우는 여인들이 여호와의 선택하는 기쁘심의 덕분으로 화목하게 된다. 이 화목으로 하나님 백성 건설에 하나가 되었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대문에 12족장들 작명이 연합되고 있는 것이다.

III. 울부짖는 어머니

라헬은 일평생 눈물로 울부짖었다. 오랜 세월 아이없는 형편을 두고 얼마나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의 최후 순간, 그녀가 "슬픔의 아들" (베노이) 을 세상에 태어나게할 때 터지고 말았다. 사는 동안에 슬퍼하더니 종내에는 마지막 생의 순간에도 애통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도 아직 멀었다. 라헬은 사는날 동안과 마지막 숨겨두는 순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후에도 울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녀가 죽은 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개인적 인격으로서 울었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지상역사에서 살았던 하나의 인물 또는 부족 어머니로서의 상이 역사상에 나타난다는 의미다. 어쨌든 그녀는 울었다. 그녀의 생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울었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오는 둘째 아이때문에 울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생명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생의 종말을 거두고 나서도 "라헬" 은 여전히 다시 우는데 깊이 무겁게 그녀의 자녀들을 두고 우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녀가 종내에 많이 갖게된 그 아이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지금은 멸망해 가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존립이 약속의 땅에서 끝장이 나지는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다. 북국은 이미 잡혀져 갔고(722) 이제는 유다 역시 강제 이송되어 바벨론 포로가 막 시작하는 때였다(587)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많이 말해야하고 이에 대해 또한 탄식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은 이 모든 탄식들을 일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언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기나긴 시대적 간격이 있는 —주전 722과 587—이 사건들을 지금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 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예레미아 30과31). 유다가 잡혀져 가고 이에 대한 애통이 일어날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씨 야곱의 아들들 그 모든 백성 때문에 여호와의 연민의 격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표현할 때, 다시말해서 전적으로 잡혀져 가는 이 가공스런 사건들에 대해 여호와의 내적 연민의 정을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라헬을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이다.여호와께서 비통한 슬픔을 그녀로 하여금 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렘31:15). 라마에서 애통이 들리는 것이다. 왜 라마에서일까? 라헬의 무덤과 관계해서 무덤장소가 다소 라마로 지칭하기 때문인가!(비고 삼상10:2; 7:17)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방향으로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라마 베들레헴, 에브랏은 서로 동일 지면선상에 있지 아

니하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달리 생각하게끔 한다. 그 이유는 라마가 양 왕국—북국과 남국—의 경계선에 있는 데 주의해야겠다. 뿐더러 라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길목에 있는 집결지로 유명하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 곳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비고 렘40:1). 그래서 "라헬"이 그 무덤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북국과 남국의 교두부에 서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여기서 부터 라헬은 전백성—한때 밧담아람에서 긴 여행을 했던 그 연고지에서 찢겨져 떨어져 나가는 북국의 종족들이여 베냐민과 함께 그 정든 선조들의 땅에서 부터 옮겨져 가는 유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녀의 탄식을 들어보자. 그녀는 위로를 받지 못하여 일천말이 그녀를 도와주지 못한다. 왜냐면 한가지 사실이 라헬에게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그녀의 자녀들을 보게되는 것이다. 많이 달라졌다고 할런지 몰라도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고 말한 그 라헬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 자녀들이 외국의 낯선 자들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어떠한 애무의 말도 어떠한 위로의 말도 소용없다. 그 자녀들이 그녀에게 주지 못하는 위로가 아니면 어떠한 위로도 거절하면서 그녀는 자녀들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다.

무자식이 복되다

그러므로 같은 라헬이다. 필객이나 소설평론가들은 라헬의 인품이 창세기에서와 같이 잘 보존 되고 있다고 말 할 것이다! 그러나 진작 같은 라헬인가. 아이들 때문에 살고 죽고 그런 어머니라면 확실히 같은 라헬이다. 하지만 같은 라헬은 아닌 것 같다. 그 아이들이 누군가? 지금 라헬이 보는 그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같은 라헬은 아니다.

라헬 자신의 아들들과 관계되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많이 말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 요셉-에브라임과 므낫세-과 베냐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30장31장에서 북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국 유다도 혼합되어 나타나기에 라헬의 탄식을 북국에만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함께 앗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더욱 많을 뿐 아니라, 빌하가 라헬에게 낳아주었던 라헬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뿐만 아니라 레아의 아들들 단지 납달리 뿐만 아니라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 잇사갈, 스불론도 포로로 잡혀 간다(시므온은 유다와 자유로이 혼성되어 나타나고, 레위는 어떠한 영역도 갖지 못하고 예루살렘 남국에만 제한되어 나타나기에 덜 독립적 부족으로 나타나는 시므온과 레위며, 실바를 통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더구나 라헬의 막내동이 베냐민(라헬의 임종시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한자)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무리에는 레아의 넷째아들 유다,-이로말하면 라헬의 경쟁자인 레아가 그의 출생으로 기쁨의 환성, 곧 "지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창29:35)-도 잡혀져 가는 것이다.

레아는 라헬보다도 낫다고 느꼈던 그 유다가 아닌가? 적어도 그 당시 밧담아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했던가? 그리고 그 유다가 가나안에서 레아의 자랑이 되지아니했던가? 그가 후에는 라헬의 후손인 베냐민 왕위(사울 왕)를 에브라임에게서 얻어내고 다윗왕에서 승리한 그 유다가 아닌가?(시 78:67).

이렇게 레아 후손이 왕이되고 야곱시대 라헬의 "인물"이었던 고대의 라헬을 회상하는 자라면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즉 "라헬"이 밧담아람의 고대노선에서 반응한다면 불쾌한 가운데서도 기뻐할것이다. 즉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은 레아의 교만한 후손(유다)이 망해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베냐민 역시 "멸망되어 잡혀간다" 자기 배에서 난 아이는 무슨 희망을 주었느냐?이 베냐민으로 말하면 출생으로 말미암아 라헬 자신에 의해 저주받지 아니했던가? 베냐민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냐민이 잡혀져간들 육체에 따른 라헬이 더 이상 관심꺼리의 대상의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다가 뿌러진다는 경우는 이제 생기가 날 수도 있다. 고대의 라헬은 고소한 웃음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 라헬을 앞질렀지만 라헬처럼 남는 것이 별로없는 이기에 그 부한 레아의 실제 낮아짐을 볼 때, 무언가 안위나 생기가 아니났겠느냐? 육체로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 "라헬"이 우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 레아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되어서 밧담아람에서와는 달리 이렇게 변해지는가? 예레미야 30,31장이 특히 에브라임에 관해서 말하는 문맥이다 보니 그런가?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면 여기 에브라임에 관해 말되어지는 사실이라 해도 그 모든 예언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실 유다를 제외치는 못할 것이다. 그럼 말하는 방식이 문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즉 "여기 라헬은 비유컨대 부족 어머니며 국가적 인물로 상징되고 있다" 고 말 못한다. 왜냐면 이렇게 문학적 비유인물이 되어 버린다면 고대 라헬의 미움같은 것은 중성화 되어버려 미워했다는 뜻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에 진술되어 있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 라헬은 하나의 부인으로 의미되고 있다는 그 자체의 설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그녀는 교회어머니로서 보아지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육체를 이기게 하는 것이며 말씀과 약속이 혈관에 있는 피와 격정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중생이요, 강한 성령의 임하심이다. 그녀가 부족어머니인가? 확실히 물론 그렇다. 하지만 여기 나타나는 의미는 라헬이 지금은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되기원하도록 하는 교회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녀의 특별히 자녀 원함이, 교회의 씨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헬은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 그녀 지신의 자손들로서만 아니라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기꺼히 받이드림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녀의 생시에는 그 일은 전적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 보다 가장 강하신 분임을 보게되었다(창30:22). 그때에 이미 라헬은 자녀들을 낳으므로 복됨을 보았다(딤전2:15) 수세기를 지난 지금 예언의 영은 라헬로 하여금 스스로 세대들간의 위화감을 싸우는 여인들의 적개심을 분단된 왕국의 갈등을 넘어서게 하셨다. 그리고는 분리되어 있는 그녀로 하여금 전체교회를 그녀의 품에 안게하셨다. 지금 라헬—라마 그곳에 있었던—온

유다를 베냐민처럼 친절히 안은 도구 잇사갈을 위해 에브라임에 대한 것 처럼 눈물로 울부짖는다. 어떠한 위로의 말들도 거절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사실만이 확실하고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모두들이 자기 라헬 옆에 있다는 것이며, 그 모두들이 약속의 품에 있는 것을 보기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들 만이 아니다.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들이나 여종 빌하가 그녀에게 낳아준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이들 야곱의 전 후손들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 울음을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셨다. 지금 라헬은 한 약속을 얻기 위해 수년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응답은 순간적으로 왔다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 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라헬아 잠잠하고 눈물을 거두라 너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의 간구가 여호와에게 들려졌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 올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헬 너 참 복되도다. 너 자녀들이 낳아지고, 보호되고, 레아의 아이들 까지도 너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씨를 위한 너의 슬픔가운데 복이 있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하심에 라헬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를 승리하여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전교회를 불붙는 가슴에 안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씨가 죄의 미끼가 되지않도록 잃지않도록 하시는 그 일이 놀란운 것이다.

Ⅳ.성경의 아내상(잠언 31:10-31)[13]

사람마다 좋은 아내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 만큼, 그런 아내를 찾기란 어려운 일임을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경험이리라. 잠언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18:22) 고 하는가 하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니라"(19:14)고 한다. 여자 신학원에서 성경적 여성론을 강의 하다가 구약 잠언 31:10-31절에 나타나는 여인상을 접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보통 "현숙한 주부에 대한 찬양"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평소에 남자군림의 여인상을 갖고 있는 남자로서 이 부분을 읽으면 도대체 남자는 가정에서 무엇하는거야? 주부는 여인으로서 남자의 아내로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남자가 아내의 배우자 정도로 나타나는 인상을 받는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내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자는 여편네에 의존되어 있는 듯 하다. 이 찬양 노래는 "억센 아내"를 보여주어 그래서 오늘날 여성해방운동자들이 가히 즐거히 자기들 구미에 맞게,봐라.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해낼 수

13) K.A.Kitchen, Proverbs and Wisdom, Books of The Ancient Near East, Tyndale Bulletin 28(1977) pp 69-114. Derek Kidner, The Wisdom of Proverbs, Job & Ecclestiastes.

있고, 남자와 같이 아니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 우위론을 주장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고 생각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성경말씀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아내상을 가지는데 유익하리라 생각들어 쓰기로 하였다.

우선 이 여인을 찬양하는 노래격식은 교차배어법(acrostiohon) 을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한절마다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시9-10, 25, 34, 37, 112, 145편이 그러하고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각 3절이, 시119편은 각 8절마다가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수가22라 할때, 시 119편은 총 176절(8+22)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교차배어법적 시적 격식을 쓴다는 것은 적잖은 모험적 기도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런 격식을 사용하므로 어떤 음운적 운을 나타내는 효과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 격식 만큼 내용적 어떤 내적 통일성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적 구조는 외적 격식 때문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잠언 31:10-31절을 NIV 번역의 도움과 필자의 의도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다.

잠언 31:10-31 번역

알레프(א)10: 유능한 아내, 누가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값어치는 진주들 보다 훨씬 더 하니라.

베드(בד)11: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신뢰해서 소득에 아무런 부족이 없을 것이다.

김멜(גל)12: 그녀는 남편에게 평생동안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다레트(דל)13: 그녀는 양털과 삼을 찾아얻어 기쁨으로 손으로 일하며.

헤(ה)14: 그녀는 무역상의 배 같아서 먼데서 그녀의 양식을 가져오니.

와우-(ו)15: 그녀는 아직도 밤인데도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주며 그 여종들에게 정한 몫 을 준다.

짜인(זי)16: 그녀는 밭에 대해 심사숙고 하였다면 그것을 사고, 그 손의 열매로 그녀는 포도원을 심는다.

헤츠(חז)17: 강하게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졸라매고 소매를 걷어 올리도다,

테즈(טח)18: 그녀는 자기 가사일들을 진행시켜야 할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꺼지 아니하는도다.

요드(יט)19: 그의 손재주는 잘 놀릴 줄 알고 가락을 언제나 손가락에 가지는도다.

카프(כי)20: 같은 손가락을 가난한 자들에게 펴며 그녀의 손은 궁핍한자를 위해 내민다.

라메드(לכ)21: 그녀의 집에 대해서는 그녀는 눈이 와도 두려워 하지 않음은 온 가족이 두벌 옷을 입혀었다.

멤(מל)22: 그녀는 잠자리 이불을 만들며 스스로는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눈(נמ)23: 그녀의 남편이 성의 장로들과 성문에 앉을 때에 그곳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는도다.

사메크(סנ)24: 그녀는 아마옷을 만들어 팔며 띠들을 장사치들에게 공급하는도다.

아인(עס)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즐겨히 닥아 올 날을 보는도다.

패(פע)26: 그녀가 말할때면 지혜롭게 하고, 인자한 계율이 그녀의 입에 있도다.

차데(צפ)27: 그녀는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름으로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도다.

코츠(קצ)28: 그 자식들이 일어선다면 그녀를 축복하고 그 남편은 그녀를 칭찬하기를.

레쉬(רק)29: "유능하게 일하는 여인들이 많으나 당신은 그 모든 이들보다 우뚝 서 있다"고 하느니라.

쉰(שר)30: 매력은 거짓되고 아름다움은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녀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타우(תש)31: 그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노래해주고 그녀의 행위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하라.

번역에 대한 별주

10절:"에세트 하일"(אֵשֶׁת חַיִל)은 여자적으로는 "힘의 여인"인데 우리말 성경은 "현숙한 여인" NIV 는 "a wife of noble character" 라 하고있다. 이러한 번역은 무엇인가 도덕적 면에 한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일"은 보통 "힘" "군대" 라는 뜻으로 어떤 내면적이면서 또한 외면적인 것들의 "가능성들" (potenties) 을 의미한다[14]. 그래서 Anchor Bible 은 "able" 로 화란어로는 "용감한"(kloek)로 할 수 있다.

문맥에 따르면 "하일"은 가능성 의미로 보여진다.그래서 룻기 2:1 에는 보아스가 "유력한 자"(관주에는 "부호")로 나온다. 그래서 생식적 가능성, 생산력의 의미로 룻4:11에는 보아스에게 장로들이 말하기를 "에브랏에서 유력하기"를 바라노라고 하고 있다. 잠언 31:3에는 르무엘 왕의 어미가 자기 아들에게 "네'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잠언 본문에서와 같이 "현숙한" 어떤 인격적 용모의 "철저함"(thoroughness)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는 웅변적인 질문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Anchor Bible 은 "Acapable wife is a rare find" 라고 번역한다.

11절의 샬랄(שָׁלָל)은 gain, benefit, spoil 소득, 이익, 노략물 뜻이다. 그런데 한역은 "산업" NIV 는 "value" 로 번역하고 있다.

13절 "브헤프츠"(בְּחֶפְצוֹ)를 한역은 "부지런히"로 하는데 여자적으로는 "기쁨으로" 뜻이다. 그리고 "손으로 일한다"는 뜻은 앞에 말한 양털과 삼을 "짠다" 는 의미겠다. 쉴새없이 부지런히 기쁨으로 손놀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4절 "하에타-카아니요트"(הָיְתָה כָּאֳנִיּוֹת)한역은 "상고의 배와 같아서"로, NIV

14) M.J.Mulder, Hayil in het Boek Ruth, een vertaal Problem, in Verkenningen in een Stroomgebied (Amsterdam, 1974) pp.120-31.

는 "like the merchant ships" 즉 무역상인의 배 같이라는 의미다.

15절 " 봐타콤"(לַתָּהּ :부정사 연계형)의 경우는 날이 새기전 아직도 밤일때를 의미한다, "테레프"(טֶרֶף)"음식,식물"의미이며 "호크"(חֹק) 는 규칙, 계율, 몫, 과업등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우리말 번역처럼 "일을 정하여 맡긴다" 는 출 5:14에 많은 분량의 과업을 의미한다. 둘째는 NIV 번역 "portions" (몫)이라하여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듯이 여종들에게도 몫을 준다는 의미다.

16절: 이 귀절은 조건적 의미로 시작한다. 즉 주절(protasis)에서는 분사형으로 종속절에서는 (apodosis) 부정사 연계형(26절 보다) 으로 되어 있다, "자므마" (זָמְמָה)를 우리 한역 어려운 말 "간품하사"로 했는데, 영어로 meditate , devise 로 심사숙고 하다는 뜻이다 (유가릿에서도 "사다"는 뜻 가짐) "라카"(לָקַח)는 여기서는 "사다"는 뜻이다. (유가릿에서도 "사다"는 뜻 가짐) 이 반대어 "나탄"(נָתַן)은 "팔다" 는 뜻이다 (24절에 나온다). "그 손으로 번 건"의 여자적 의미는 "그 손의 열매에서 부터"라는 의미다.

18절의 "타아마"(טָעֲמָה)는 taste, perceive 인데 우리 한역은 "깨닫고"라고 한다. "사할" (סָחַר)은 trade, gain 인데 여기서는 무역이익 보다는 가사일 돌보는 일로 봄이 좋다. "밤에 등불을 꺼지 않는다" 는 말은 가사의 만사를 정돈하는 증거로 본다.

19절 "키-솰"(כִּישׁוֹר)과 페렉크(פֶּלֶךְ)가 병행되어 나타나기는 여기 뿐이다. "페렉크"의 의미는 물레가락(실을 자아감은 도리 구실을 하는 막대기)으로 확실 한데 키-솰은 언어적 배경으로는 잘 모른다. 그런데 NIV 는 이 다음 병행구만을 짐작해서 "distaff"와"spindle"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 한역은 "솜뭉치"와"가락"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J.P.Lettinga 교수는 ksr (유가릿어 ktr)는 "솜씨좋은" "재주있는" 뜻이 있다고 한다.[15]
그래서 bekosarot 가 시 68:7 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능하게"(met bekwaamheid)라는 뜻이라고 한다.[16] [17]

21절 "그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홍색"의 언어는 "샤니- "(שָׁנִי)인데 LXX 와 Vulgate 역에 따라 "세나임"(שְׁנִים) 곧 두배로라는 뜻이다.

22절의 "마르바드"(מַרְבַד)는 오직 복수로만 사용되어 coverlet (침대덮게), carpet 뜻인데 한역은 "아름다운 방석" 이라고 했고, NIV 는 "coverings for bed" 로 번역한다.

23절 "브시브토"(בְּשִׁבְתּוֹ)가 "그가 앉을 때에"는 함께 공의를 말하려고 않는 것을 뜻하고, "그땅"은 여기서는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24절 "사디-ㄴ"(סָדִין)은 아마 옷들이다. "라캐나안니" (לַכְנַעֲנִי)을 한역은

15) J.P.Lettinga, Een Bijbelse Vrouwenspiegel in Bezield Verband (Kampen:Van den Berg. 1984) pp. 119-125. ern

16) J.P.Lettinga, 상게서 pp. 119-125.

17) M.H.Lichtenstein,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of Columbia University 4((1972) pp. 108-110).

"상고에게"라고 번역하고. NIV 는 "Merchants" 로 번역한다. 그런데, 후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비이스라엘인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이들로 지칭했다 (욥 40:30, 사30:16).

28절의 가정 가족끼리 칭찬은 31절에서는 "성문에서"-즉 궁중 앞에서 칭찬받는 결과로 나온다.

31절의 "테누"(תְּנוּ)는(נָתַן)의 명령형으로 (1) bestow (2) sing 두 뜻이 있다. 유가릿이 tny 와 관련되는 삿 5:11, 11:40에 노래하라는 뜻이다.

작문구조

이 노래는 많은 주석이 필요없다.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유일한 해석이다. 먼저 작문구조부터 생각해 보면 M.H.Lichtenstein의 Chiasm and symmetry in Proverbs 31[18]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4 (1982) pp. 202－11)에서 잠언 31장의 구조에 대한 개요적 연구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하일"(חַיִל)이 10절과 29절(우리 한역은 "현숙한" 과 "덕행있는" 것으로 번역했다)에 따라나고 "봐여라"(בַּעְלָהּ 그녀의 남편)가 11절과 28절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 노래는 원래 10－29절에 되어있고, 30－31절은 결론 귀절들로 본다. 이 노래는 A－B, B－A 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19－20은 정확히 교차배어법적 통일성을 나타낸다. 이 귀절을 전후로 각 9절로 한 단위가 되어(10－18 과 21－29)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양쪽 부분에 같은 말들이 많이 나타나는 서로 대칭적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Lichtenstein 의 주장이다. 이러한 대칭구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맞추는 것도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가령 큰집의 가사일들을 분류해 보는 작업, 그것도 고풍의 농경시대의 일을 모델로 해 보면 재미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기계산업화 시대에 사는 우리가, 모든 것의 원자제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주에게 주는 고풍의 가사일들이 무엇인지 분류해 보고 점검해 보는 일을 상상해보라. 특히 오늘날 직물 견직 사업이라고 하는 "옷" 가지 일들을 "o" 자로 정돈해 본다고 해 보라.

1) 양털 깍는 일이며, 식물줄기 다루는 일이며, 양털과 삼재료 같은 농산물 일을 다루는 것.

2) 실 재료들을 만들고 이 실들을 실패와 짜는 일이며.

3) 옷천들이며, 방식같은 것을 만드는 일이며, 제반 직물짜는 일들이 있다.

4)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기본 재료들을 수입하거나 사고 특히 본국성을 떠나 외국시장에 가서 특산물 삼베, 명주, 자색옷 가지들을 사는 일들이 있다.

5) 자신의 집에 필요이상 남는 가산품을 외국에로 수출하거나 파는 일이다.

6) 궁핍하고 필요한 자에게 옷가지를 공급해 주는 일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다보면 모

18) M.H.Lichtenstein 의 Chiasm and Symmetry in Proverbs 31(Catholic Biblical Quarterly 44 (1982) pp. 202-11).

든것을 "o" 자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면 여러가지 품목들과 일들을 여러가지 문자로 나누어 보되, 최대한 "o"자로 정돈해 보려고 할 것이다. 다른 직종에서도 여러가지 관련된 활동들이 나타난다. 여인이 직물일들을 함에도 조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3절은 양털과 삼같은 재료들을 얻는 일이며, 19절에는 가락으로 하는 일이며, 21절과 22절은 이불호천이며 옷가지를 만드는 일들이며, 24절은 이 재료들을 짜는 일들이 역시 나타난다.

이 노래는 또한 농부 여인의 경제적 활동들도 나타난다. 22b과 24절에는 옷가지들을 수입하고 수출할 뿐만 아니라 24절은 먼데서 양식을 공급한다. 16절은 그녀 계산에 맞으면 토지 재산을 확장한다. 그렇다고 가난한 땅 소유주를 희생 시키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수 가락으로 짜서 벌어서 그러면서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무엇보다 이모든 바쁜 활동상을 보여주므로 여인은 남걸형의 여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을 늘 염려하고 이해하는 말로 말하고 교훈을 주고, 지시할 때면 친절하고(15, 26), 그러므로서 열심의 본이 된다(27). 이렇게 가사의 일들이 광범위하게 나열되므로 그것도 조직적이 아니고 여러가지 활동들이 흐터져 있는 구조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적 아내상

이렇게 "ㄱ"에서 마지막 "ㅎ"까지 노래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이런 활동의 주체자는 다름아닌 "여인" 가정주부이며, 현숙한 가정주부이다. 이 여인에 대한 찬양으로 잠언서는 끝이 나고 있는 셈이다. 이 여인이 본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 부분(31 : 1-9)에서는 외국에 있는 황후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통치 프로그램의 기초를 주고 있다. 그 다음 가사일을 전적으로 도 맡아 경영하는 중심인물인 여인을 노래하고 있다. 농경시대의 가사일을 밤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밤늦게 일하고 집안일이 그녀에 의해 다스려지고 그녀가 과업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것은 도맡아 책임져 가는 모든 활동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였다. 이리하여 이 여인이 가족 드라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노래의 크라이막스는 화기 애애한 가족식탁 장면으로 이끌어 준다. 마침 일종의 생일 기념잔치 석에서 아들들은 어머니께 사례하고, 아버지는 자기 생각을 애교있게 표현하기를 "당신 최고야"하는 것이다.(28, 29)

그런데 이것이 이 잠언의 종말이냐?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소매를 말아 올려 일하고 가사의 모든 일에 자기 분수를 알아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 여인의 남편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녀를 신뢰 할 수 있는 것이다.(11절, 비교 12) 이러한 신뢰로 인해 사업의 지도력이 행사되고 더욱이 남편이 권위의 사람으로 공중의 관심이 진작되는 셈이다(23). 그러므로 그녀 자신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돕는 여인을 가지는 남편이 중심이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다. 남편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의지하는 아내며 어머니에 대한 이 노래의 중심은

여호와 자신 외 다른 분이 아니시다. 마지막 귀절은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하는 것은 그녀의 모든 생활상이 환히 드러나는 성문에서 전 가족 체계의 비밀로서 들어난 것이 있다.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다. 온 공중이 하나같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것이다. 지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오산하지 않고 그 미가 무엇인지 보게 한다. 매력은 거짓되고 아름다움은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녀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고로 그들이 그녀의 말에 따라 보수 해 주고 성문에서 그녀의 행위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다.[19]

여기 여인의 위대한 가치는 그 매력도 그 외적 아름다움도 아니다(30절). 그렇다고 그녀의 행위 때문도 궁극적으로는 아니다. 그녀의 가사일을 꾸려 가는 부지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16절, 24절에 이 개념이 포괄적으로 나타난다). 오직 그녀의 성품때문이다(11-12, 20, 26). 즉 무엇보다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30절).

이렇게 이상적인 성경의 여인상에서 분명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는 자기 주인이나, 상전의 노예는 아니었다는 셈이다.[20] 여기에 조금도 천시하는 흔적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인에게 분수 해 둔 말하자면, 남자를 돕는 배필의 여인상을 볼 수 있다(창2 : 18). 그런고로 여기서 오늘날 여성 해방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뜻을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오산이다. "억센 여인상" 남자군림상을 찾지만 이들은 거개 26절과 30절이 말하는 종교적 지성적 관심은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은 여인에 대해서도 그 남편에 대해서 촛점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그녀의 남편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영광스럽게 기록되었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자녀들도 그를 칭찬하고 우리 역시 그녀의 덕을 인정하고 칭찬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주부상은 오늘날 아내상과는 그 성격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아내의 날마다의 생활은 그녀 남편의 것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호관련성이 사회 발전과 함께 많이 없어지고 가족과 일들 간에 크다란 구분만 자라 온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남편과 여인간의 과업과 책임성이 차별해서 보기 보다는 구분해서 보아지지만 여기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나타나고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을 관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남편이 간간히 언급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이상적 의미의 여러일들이 언급되는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노래는 시대와 관련을 가지나(tijdgetrokken)시대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tijdegebonden) 그러기에 오늘의 "일하는" 여인들이 여기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조명받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잠언기자 아니 성령님의 기지를 보게 된다. 잠언의 시작 주제는 "여호와를

19) H.J.Schitder, Ik Kom Thuis, (Haarlem, 1981) pp 136-139.

20) Margaret B.Crook, The Marriageable Maiden of Prov 31:10-31. i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3(1954) pp 237-140.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1 : 7)고 하는 것이었다.
이제, 책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통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은 주제가 나온다. 이 여인의 하루 하루 생활의 중심에는 여호와 경외가 있다. 이 주제가 9 : 10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고 있다. 잠언의 구구절절의 기본 성격이 경외다, 각 잠언마다 지혜자 되신 그 분을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21]

21) I.C.C. (C.H.Toyl 1899), Boeken van het O.T (J.Van der ploeg 1952).
Korte Verklaring (W.H.Gispen 1934). Anchor Bible (R.Y.Scott, 1965). 등을 보라.

책 목록

- Holwerda, B. Histrora Revelationis Veteris Testamenti Deel I Kampen : Vanden Berg, 1971.
- Kidner, Derek.The Wisdom of Proverbs, Job & Ecclesiastes, Downers Grove: IVP. 1985.
- Lettinga, J.P. "Een bijbelse Vrouwenspiegel" ed. by J.Kamphuis, Bezield Verband, Kampen : van den Berg, 1984.
- Schilder, H.J. Rachels Troost : Vrouw en Vrouwen in de heilshistorie, Goes : Oosterbaan & Le Cointre, 1960.